

【영화과 진로 로드맵】

진로명	영화전공분야						
	과정	교과목명	학년-학기	이수 구분			
교과 이수	준비과정	영화입문	1-1	전공선택			
		영화기술	1-1	전공선택			
		영화사1	1-2	전공선택			
		영화읽기와쓰기	1-2	전공선택			
		시나리오작법	1-2	전공선택			
	연습과정	영화연출론	2-2	전공선택			
		영화제작실습	2-2	전공필수			
		영화편집론	2-2	전공선택			
		촬영1	2-2	전공필수			
	완성과정	영화분석과비평	2-2	전공선택			
		촬영3	3-2	전공선택			
		영화워크샵2	3-2	전공필수			
		프로덕션디자인	3-2	전공선택			
		후반작업실습	3-2	전공선택			
		촬영4	4-1	전공선택			
		제작기획2	4-2	전공선택			
		졸업작품2	4-2	전공선택			
개요	1. 준비과정	: 영화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영화감독이 되고자 희망한다. 아무래도 영화분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영화감독이기 때문이다. 흔히 1학년 때 아무렇게나 영화를 찍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 지속력이 짧아서 자신의 꿈에 이르지 못한다. 영화가 사람의 머리 안에서 먼저 임태된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기 전이라 무조건 찍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버린 결과이다. 그러므로 찍기 전에 구상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점검하는 일을 배제하면 완성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2. 연습과정	: 스스로 시나리오도 한 편 써 보고 선배와의 워크샵에서 영화 현장을 체험하고 나면 뭔가 알게 된 것 같은 뿌듯함에 젖기 십상이다. 사실 그때가 무척 조심스러운 시기이다. 학교에서는 한 방에 스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철저한 연습으로써 영화제작의 기본기를 다지지 않으면 욕심은 욕심에 그칠 뿐이므로 창작의 인내력을 길러야 한다.					
	3. 완성과정	: 연습과정에서 영화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해 본 학생만이 프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완성과정에서는 먼저 정신적으로 자신이 프로가 되었다는 마인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한 완성도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세상과 어깨를 겨루는 시기이다.					
	4. 요구사항	1. 준비과정 - 카메라를 들고 찍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함 - 무조건 찍는 습관이 붙지 않도록 구상이 탄탄해질 때까지 쓰고 정리하는 반복이 필요 - 허술한 장면이 생길 때 현실과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함 2. 연습과정 - 어떤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연습이 곧 실전이라는 마인드를 장착함 - 시나리오 완결에 대한 반복 훈련은 많을수록 좋음 - 하나의 Shot을 짜더라도 전후관계에서의 최적을 배치할 수 있는 안목을 기름 - 실력이 탄탄한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고 좋은 배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함 3. 완성과정 - 영화산업 현장과 같은 프로세스를 체험하는 것이 목표임 - 경쟁력 있는 완성 작품을 추구하되 결과에 얹매이지 않은 완벽한 마인드를 아는 과정					
관련 직업	영화마케터, 영화평론가, 아트디렉터, 폴리아티스트, 시나리오작가, VR·AR영상연출가						
취업 가능한 곳	영화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방송제작사, 광고 및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영화현장 스탭						
필수 자격	파이널컷프로자격증, DCP기술자격증, 드론촬영자격증, 프로툴자격증 등						